

# “할러윈, 불경기 속 반가운 ‘대목’이지만 조심스러워...”

### 광주 상무지구 등 일부만 잿오렌트·모형 해골 등 장식 이태원 참사 여파...경찰, 질서유지 안내 등 안전 주력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분위기죠. 그래도 반가운 대목이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할러윈(10월31일)을 하루 앞둔 지난 30일 오후 9시에 광주 서구 상무지구 유흥가. 거리를 따라 늘어선 술집과 식당 바깥에는 도깨비 얼굴이 세겨진 호박 연등(잭오렌트)과 모형 해골 등 할러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소품이 전시돼 있었다.

이를 보며 시민들은 “벌써 할러윈이 아”거나 “올해는 무슨 이벤트를 할까”라는 등 궁금증과 기대감을 드러냈다.

할러윈 당일엔 물론 주말이 아니어도 일찍이 천사나 악마 등의 분장을 한 채 돌아다니는 시민들도 더러 눈에 띄었다.

그러나 정작 상인들의 반응은 뜸떠름했다. 이를 방증하듯 할러윈 소품으로 가게를 장식한 곳은 몇 곳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술집도 특별한 이벤트 없이 평상시 모습이었다. 이는 2년 전 할러윈을 앞두고 서울 이태원에서 150명이 인파에 깔려 숨진 참사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5년 넘게 상무지구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30대)씨는 “지난 주말



할러윈을 하루 앞둔 지난 30일 오후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가게에 호박 연등(잭오렌트)과 모형 해골 등이 장식돼 있다. /주성학기자

부터 거리에 할러윈 분위기가 나긴 했지만, 이태원 사고 이전만 못하다”며

“지난해보단 할러윈을 기념하는 곳이 늘어났지만,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술집 업주 이모(40대)씨는 “혹시 모를 특수를 위해 조명과 약제사리로 가게를 꾸미긴 했지만, 지난 주말과 이번 주 평일은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며 “경기가 어려울 때 기념일이나 행사는 그야말로 반가운 ‘대목’이라 올해도 기대해 보고 있긴 하다”고 전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 속에서 경찰은 이번 주말 할러윈 영향으로 시민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인파밀집 관리대상(충장로·상무지구·전남대학교 일대)에 대한 순찰을 평소보다 촘촘히 진행하고 있다.

이날 상무지구 일대를 순찰한 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 6팀은 경광봉과 무전기 등을 갖춘 채 인파 밀집이 우려되는

▲사라각 인근 골목 ▲상무광장 ▲센트럴 호텔 주변을 돌아다니며 인근 상가 측에 “인파가 몰릴 때 질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 원활한 통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리 주변의 적치물에 대해선 소유주를 확인하고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혹시 모를 위험 요인의 사전 제거에도 힘썼다.

서현석 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 6팀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매일 12개의 팀이 돌아다니며 인파 밀집 구역, 범죄 신고 다발 구역 등에 대해 순찰을 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은 물론 앞으로도 시민의 평온한 일상이 늘 지켜질 수 있도록 안전 관리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성학기자



‘올바른 손씻기로 감염병 예방해요’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씻기 체험 행사가 31일 광주 서구청 1층 로비에서 열려 직원과 시민들이 부박스를 통해 오염도를 확인하고 있다. /김애리기자

## ‘뇌물수수’ 前 치안감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 “방어권 보장” 보석 요청도

‘사건 브로커’로부터 청탁성 뇌물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치안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3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안감 김모(58)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김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브로커 성

모(53·제3차뇌물취득)씨와 승진 청탁자 A(55·제3차뇌물교부) 전 경감이다.

김씨는 지난 2022년 광주경찰청 재직 중 성씨로부터 A씨의 승진을 청탁 받고 그 대가로 1천만원의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천만원, 1천만원 추징 등을 선고받았다.

당시 경위에서 승진한 A 경감에겐 징역 8개월, 성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이날 김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성씨

에게서 승진 청탁과 뇌물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사건 증거가 사실상 브로커 성씨 진술뿐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청구를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A 전 경감 측도 “성씨에게 금품을 준 사실은 인정하나 김씨 전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경찰관직 해임에 실행 선고로 이미 충분한 처벌을 받고 있다”며 감형과 보석 인용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9일 피고인 중 입장이 엇갈리는 성씨에 대해 다시 신문하고, A 경감의 승진 당시 소속 경찰서장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안재영기자

## 영화 ‘원라인’ 현실판... ‘작업 대출’ 일당 무더기 검거

### 수수료 33억 챙겨...광주청, 총액·불법 대출 132명 붙잡아

“민 대리요? OO팀 소속 맞습니다.” 금융 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게 해주는 ‘작업 대출’을 다룬 영화 ‘원라인’의 조직을 현실에서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31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작업 대출 조직 총책 A씨와 조직원 등 총 132명, 이들과 공모해 금융 기관에서 불법으로 대출을 받은 8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 중 12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12명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단계다.

작업 대출 조직을 이끈 주범 A씨 등 2

명은 송치 전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이들을 대상으로 금융 기관 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며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조직에 의해 이뤄진 대출은 3천500여건, 총 금액은 180억원에 달한다. 조사 결과 총책, 모진책, 상담책 등의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활동한 이들은 대출 문의자 대부분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이었다는 점을 노려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어도 마치 자신들 덕에 대출이

된 것처럼 속여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직장과 수입이 없어 대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이들에게 거짓으로 소득 확인서 같은 증빙서류를 작성해 금융 기관에 제출하게 했다.

이후 금융 기관에서 소득 확인서에 기재된 직장의 전화번호로 대출 신청자의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면 자신들이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확인 전화를 받은 상담책이 속아 넘어간 금융 기관에선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줬다. 이 같은 ‘작업 대출’ 첩보를 입수한 경찰청은 수사에 착수, A씨 등 주범 2명을 검거하기 전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 /안재영기자

## “낙상 사망사고 이례적...의료진 책임 없다”

### 법원 “당직 근무 과실 인정돼도 뚜렷한 관련 無”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입원 환자가 새벽에 침대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인 일”이라며 당시 당직 의료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31일 업무상과실사자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한 재활병원의 전직 의료진 4명에

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직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으로 근무했던 피고인들은 지난 2019년 3월25일 오전 1~4시 사이 파킨슨병 환자 A(70대·여)씨가 침상에서 떨어져 사망한 동안 잠을 자거나 순찰을 돌지 않는 등 당직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일부에 대해 병원 당직 근무와 관련,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여지는 있지만 A씨의 낙상 자체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봤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낙상 자체는 당직 근무자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이라고 보인다”며 “낙상 자체로 즉사했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안재영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SONY**

# USB DVD

##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S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